

‘26년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 참여 중소기업 모집

- 2월 9일부터 25일까지 접수... 사업화·현장 실증·투자 연계 3개 유형 모집
- 전년 대비 지원 규모 확대 및 투자 연계형 신설로 사업화 지원 강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탄소중립 분야 유망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2026년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2월 9일(월)부터 2월 25일(수)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사업’은 사업화 단계에서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탄소중립 분야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의 보급과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은 기술 성숙도와 투자 여부에 따라 ▲기술사업화, ▲현장실증, ▲투자연계의 3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전년 대비 지원 규모를 확대하여 총 17개의 중소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며, 민간 투자와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투자연계형’ 유형을 새롭게 신설하였다. 이를 통해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사업화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기술사업화 유형은 최근 3년 이내 탄소중립 관련 특허권을 보유하거나 국가 연구개발(R&D) 과제에서 성공 판정을 받은 중소기업 약 10개사를 선정하여, 컨설팅, 제품 개선, 국내외 검·인증 등을 기업당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한다.

현장실증 유형은 국내·외 수요기업 또는 공공기관 등에서 현장 기술 검증이 필요하고, 수요기업 협약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4개사를 선정하여, 현장 성능 점검, 제품개선·설치 등 실증을 기업당 최대 6억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올해 신설된 투자연계 유형은 기후테크 혁신기업과 직전 3년간 해당기업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 액셀러레이터(AC), 벤처캐피탈(VC)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3개를 선정하여, 판로 개척, 창업 보육 프로그램, 전시회 참가 등을 컨소시엄당 최대 4억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부 누리집(mss.go.kr)에 게시된 사업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 신청은 ESG통합플랫폼(www.esg.kosmes.or.kr)을 통해 가능하다.

담당 부서	중소벤처기업부 대외환경대응과	책임자	과장	예우영	(044-204-7444)
		담당자	사무관	박재홍	(044-204-7464)
			주무관	김지은	(044-204-7793)